

'배달의 명수' 업그레이드

군산시, 기존 서비스에 꽃집·떡집·정육점 등 업종 추가 영세소상공인 비대면 시장진출로 부담 덜고 경쟁력 강화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에 기존 서비스와 함께 꽃집, 떡집, 정육점 등 배달이 가능한 업종을 추가, 10월초부터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로 시민들 앞에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다. 군산시는 '배달의 명수'에 기존 서비스와 함께 꽃집, 떡집, 정육점 등 배달이 가능한 업종을 추가해 영세소상공인들의 비대면 시장 진출 기회를 높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5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출시한 군산음식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6개월간의 운영성과를 기반으로 배달이 가능한 업종(꽃집, 건강원, 방앗간, 떡집, 정육점 등)까지 확장에 10월 초부터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 깊어지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온라인 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준비됐다.

추가업종 가맹점은 9월 현재 신청모집 중이며, 가맹점 입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배달의 명수 고객센터(070-8878-6411)로 문의하면 된다.

'배달의 명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죽어가는 상황속에 음식점주들이 가맹료와 광고료, 수수료 없이 배달플랫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지난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군산방문이 이어졌으며, 최근에도 공공배달앱 도입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 인권광역협의회 등에서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난 8월말 배달의 명수를 사용하는 가맹점 중 50여개소를 전화조사한 결과 전체 배달앱 주문건수 중 배달의 명수를 통한 주문율이 30%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배달의 명수'를 사용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한 가맹점은 47.2%, '배달의 명수'가 도움이 된다'고 답한 가맹점은 83.3%로 배달의 명수가 골목상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월 출시 4,735건이던 주문건수는 6개월동안 월평균 3만건, 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3일까지 누적 18만3,342건, 44억여원의 매출로 배달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간 가맹점주의 주요 불편사항이었던 영수증 미출력 등을 개선하고자 현재 POS(주문접수관리) 연동프로그램을 개발 중으로 10월 중 배포해 업주들의 불편사항도 조만간 해소시킬 예정이다.

'배달의 명수'는 소상공인에게는 광고료와 수수료를 절감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역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 하는 윈윈어플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가맹점과의 권역별 간담회를 추진해 소비자에게 더욱 혜택이 돌아가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더욱 윈윈할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군산 지역아플 '배달의 명수'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갈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송학동 행정복지센터는 15일 (유)광진이엔지(대표 이준우)를 송학동 착한가게 44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광진이엔지, 송학동 착한가게 44호점 선정

송학동 행정복지센터는 15일 (유)광진이엔지(대표 이준우)를 송학동 착한가게 44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기업으로 선정된 '광진이엔지'는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을 겸리(현장의 전반적인 작업이 법규나 규칙에 맞게 시공 관리되는지 감독, 확인하는 전문적 기업이다.

현판식에 참여한 이준우 대표는 "착한기업이라는 지역사회 후원으로 주민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며 "다가오는 한가위에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박종석 송학동장은 "코로나19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발적인 참여를 해주시는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송학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양선 위원장은 "지역사회 나눔에 앞장서 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 늘 소중한 마음으로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송학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올해 신규로 8곳이 착한가게로 가입해 현재 총 44개소가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남은 하반기에도 후원금들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재난안전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군산시가 재난안전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15일 군산시 재난안전네트워크 15개 재난관련 봉사단체대표 및 실무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군산시 재난안전네트워크 발대식을 센터 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 차원에서 예년과 다르게 소수의 회장단만 참여해 발대식을 진

행했고, 위촉장 수여식과 선서문 낭독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하는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의 자원봉사센터에는 현재 재난상황 시 원활한 피해복구 활동을 위해 관내 재난관련 15개 봉사단체, 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재난안전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푸드플랜' 추진 순항

'시민이 행복한 익산시 미래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 푸드플랜(먹거리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재단법인 타당성 검토를 위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1일 개최한 결과 적정정보를 받았다. /익산=장양원 기자

재단법인 설립 근거가 되는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에 반영함으로써 이사회 구성 등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착수한다.

시는 성공적인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도심권 상설 직매장 구축과 농민기공 활성화,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민관커버넌스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다이로움, 가맹점 등록 신청하세요”

30일까지...10월부터 결제 가능

익산시가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이 사용 가능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달까지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직접 '익산다이로움 가맹점'으로 등록 신청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이로움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익산다이로움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들은 오는 30일까지 가맹점 등록신청을 마무리해야 10월부터 다이로움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기한 내 신청을 안 할 경우 10월 이후 가맹점 등록이 자동 취소되어 다이로움 결제가 제한된다. 가맹점 등록신청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간편문자

등록신청(개별 가맹점주에게 발송되는 문자에 표기된 인터넷 사이트(<https://kt.com/zkzy>)를 클릭)을 통해 가입하면 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착한페이앱(익산다이로움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시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점 지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제한업종과 타지역 분사지역 가맹점 등을 제외하고 기존 가맹점들은 대부분 가맹점이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익산다이로움은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1만2천여 곳의 사업장에서 자동으로 등록되어 사용해 왔다.

시는 업체들에게 이달 말까지 가맹점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 한편 10월 이후에도 미신청 가맹

점과 신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촉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으로 다이로움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번거롭고 가맹점 미등록 시 결제 제한으로 사용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이번 가맹점 등록은 법적인 절차만족을 위한 내 모든 사업장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다이로움은 지난 1월 출시와 현재까지 7만4,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1,226억원을 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0%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달에는 골목상권 살리기 '추석맞이 깜짝 이벤트'로 사용금액 중 5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다시 포인트로 되돌려 주는 페이백을 시행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